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월 중순 이후로 최저치
- WSJ: 소비자 신뢰도 하락...소매 판매 증가율 둔화

[미국 금융]

- WSJ: AI 투자 흐름: 구글은 상승, 엔비디아는 하락

[글로벌 금융]

- Reuters: 세계 중앙은행들, AI 도입에 신중...달러 의존도 여전히 높아

[한미 관세]

- Bloomberg: 한국, 자동차 관세 인하 위해 특별 법안 제출

[자동차]

- WSJ: 상원 위원회, 자동차 안전규제에 제동...'비용만 높일 뿐'

[주택]

- CNBC: 주택 판매자, 10여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주택 시장에서 매물 철회 중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 월마트, 새 쇼핑 앱 “Sparky”에 광고 도입 검토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Jobless Claims Decline to Lowest Level Since Mid-April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월 중순 이후로 최저치

-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지난 주에 4월 중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.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.
-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지난 주에 6천 건 감소하여 21만 6천 건을 기록하였다.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, 이들은 22만 5천 건의 신규 신청을 예상했었다.
- 노동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,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지속적 신청 건수는 지난 주 196만 건으로 소폭 증가했다.
- 이러한 지표는 고용주들이 신규 채용을 줄인 반면, 기존 직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. 최근 몇 주간 아마존과 Verizon을 포함한 대기업들의 감원 발표는 늘고 있지만, 아직까지 실질적인 해고 규모는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WSJ: Consumer Confidence Fades and Retail Sales Growth Cools

소비자 신뢰도 하락...소매 판매 증가율 둔화

- 셧다운으로 인해 발표가 지연되었던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, 11월에 미국 소비자 신뢰도가 급감하였다.
- 소비자 신뢰도는 10월의 95.5에서 11월에는 88.7로 하락했는데, 이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93.2보다 낮은 수치이다.
- 반면, 상무부는 9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.2% 증가하였다고 밝혔다. 그러나 이 수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했던 0.3% 증가에는 미치지 못한 것인데, 소비자들이 관세 여파가 큰 자동차, 전자제품, 의류 등 주요 품목 구매를 줄인 데에 따른 것이다.
-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들은 술집과 식당, 개인용품점, 가구 등에 있어 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 또한 고소득 가구의 지출이 커짐에 따른 것이며 저소득 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.

WSJ 기사

[미국 금융]

WSJ: AI Trade Splinters as Google Challenges Nvidia's Dominance

AI 투자 흐름: 구글은 상승, 엔비디아는 하락

-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시가 총액이 4조 달러에 근접하면서, 알파벳의 주가는 1% 이상 상승하였다. 이는 알파벳의 AI 툴, 클라우드 컴퓨팅 및 칩 사업에 대해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.
- 반면,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은 몇 주 전 달성한 5조 달러에서 더욱 낮아지면서 주가가 2.6% 하락하였다.
- 이와 같이 투자 흐름이 엇갈린 데에는 메타가 엔비디아 대신 구글의 데이터 센터용 AI 칩을 수십억 달러 규모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.
- 또한, 최근 AI 인프라 투자가 향후 몇 년 안에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엔비디아의 주가에 큰 타격을 입힌 바 있다.
- 엔비디아는 이에 대응하고자 7페이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애널리스트들에게 배포했으나, 애널리스트들은 이 조치가 오히려 지나치게 방어적이라고 평가하며 더욱 큰 우려를 제기한 상황이다.



WSJ 기사

[글로벌 금융]

Reuters: World's central banks are wary of AI and struggling to quit the dollar, survey shows
세계 중앙은행들, AI 도입에 신중...달러 의존도 여전히 높아

- 금융 기관 포럼이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, 세계 중앙 은행들 대부분이 AI 도입에 있어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. AI 기반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미래의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.
- 설문에는 유럽, 아프리카, 라틴 아메리카, 아시아, 미주의 10개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이 참여했다. 이에는 G20 국가의 은행 6개, G7 국가의 은행 2개가 포함된다.
- 이들 중 60% 이상은 AI 도구가 테크 기업 및 투자 은행에서 해고를 촉발했으나, 아직 핵심적인 기업 운영을 지원하지는 못한다고 답하기도 했다.
- 한편, 중앙은행들은 세계가 단극 혹은 양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극화 경제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자산을 다양하게 투자하길 원한다고 답했다.
- 실제로 약 60%의 응답자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길 원하지만, 미국 국채의 압도적인 유동성 때문에 달러는 여전히 최우선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.

Reuters 기사

[한미 관세]

Bloomberg: South Korea Submits Special Bill Aimed at Cutting US Car Levies
한국, 자동차 관세 인하 위해 특별 법안 제출

- 한국이 미국에 대한 3,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이행하고자 특별 법안을 제안 했다. 이를 통해 이번 달부터 한국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가 15%로 낮아질 수 있게 되었다.
- 이 법안 제출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25% 관세를 15%로 인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고 한국 관계자는 밝혔다.
- 이 법안에는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설립하고, 이를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최대 20년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다.
- 한편, 2024년 한국의 자동차 수출 708억 달러 중 거의 절반이 미국으로 향했으며, 자동차 부품 또한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.

Bloomberg 기사

[자동차]

WSJ: Senate Committee to Challenge Auto-Safety Mandates That Hurt 'Affordability'

상원 위원회, 자동차 안전규제에 제동...'비용만 높일 뿐'

- 미국 상원 위원회가 내년 1월 청문회에서 자동차 안전 규제 및 일부 자동차 산업 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 밝혔다.
- 공화당 의원들은 자동 비상 브레이크나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보 장치 등 일부 안전 기술이 불필요하고 자동차 가격을 올릴 뿐이라고 주장한다.
- 올가을 신차 평균 가격은 5만 달러를 기록했는데, 이는 팬데믹 이전의 3만 8천 달러에서 대폭 상승한 수치이다. 수리비, 대출, 보험 등 자동차 소유자의 비용이 더욱 증가한 것이다.
- 특히 센서, 카메라,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충돌을 감지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 시키는 자동 제동 기술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.
-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 기술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용성이 떨어지고 예기치 않은 급제동으로 인해 2차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.
- 반면, 안전 옹호 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“규제가 생명을 구한다”고 주장하며 신기술 보급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은 규제임을 강조해온 것이다.

WSJ 기사

[주택]

CNBC: Sellers are taking their homes off the market at the fastest pace in nearly a decade

주택 판매자, 10여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주택 시장에서 매물 철회 중

- 미주 소재 기술 기반 부동산 중개 회사 Redfin에 따르면, 주택 판매자들이 수요 감소 및 주택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주택 시장에서 철수 중이다.
- 9월에 미국에서 주택 매물을 철회한 판매자들은 8만 5천 명을 기록했는데,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% 늘어난 수치이며, 최근 8년간 최고치이다.

- 이는 9월 매물의 70%가 60일 이상 시장에 남아있으면서 주택 가치가 떨어진 데에 따른 것이다.
- 이로 인해 주택 판매자가 낮은 가격을 거부하고 매물을 철회해버리게 되면, 시장에 남는 실제 매물이 줄어들어 주택 매매 가격이 높게 유지된다.
- 또한, Realtor.com에 따르면 주택 매물 공급량은 여전히 지난 해보다 15% 높지만 소비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앞으로 공급량이 줄어들 가능성성이 높은 상황이다.

CNBC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Walmart Is Exploring Bringing Ads to Sparky, Its New AI Shopping Agent

월마트, 새 쇼핑 에이전트 “Sparky”에 광고 도입 검토

- 월마트가 자사의 새로운 쇼핑 에이전트 “Sparky”에 광고 도입을 검토 중이다. 이를 통해 소비자와 에이전트 간의 채팅을 새 수익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.
- 이들은 “스폰서 프롬프트(Sponsored Prompt)”라는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테스트하고 있으며, 9월부터 테스트를 시작하여 1차 테스트를 마친 상태이다.
- 월마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“스폰서 프롬프트” 형식의 질문을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Sparky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특정 광고가 뜨는 방식이다.
- 예를 들어, “카페인이 가장 높은 에너지 음료는?”과 같은 프롬프트를 누르면 Sparky가 개개인에 맞추어 제품을 추천하고, 그 밑에 특정 에너지드링크 광고가 뜨는 것이다.
- 이와 동시에, 월마트는 또한 OpenAI와도 협업하여 곧 미국 ChatGPT 사용자들이 플랫폼 내에서 월마트 제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WSJ 기사

KOCHAM | 460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